

6월 7일 강의

## 데보라와 바락

**핵심 구절:** “그 때에 라피도스의 아내인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야자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사사기 4:4,5

**선정된 성경 구절:**

사사기 4:1-24; 5:1-3

80년 동안 평화와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야빈 왕과 그의 장군 시스라를 앞세운 가나안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건한 한 여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졌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였다.

본문의 핵심 구절에 언급된 대로, 데보라는 “야자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지혜와 정직함, 그리고

용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파악한 데보라는 용사 바락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타보르 산으로 올라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중을 네게로 이끌고 오리니,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 4:6,7

바락은 이 말씀을 전에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이제 드보라의 격려를 받아 행동할 때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믿음을 북돋우고 지도력을 북돋우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가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도 가겠으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사사기 4:8). 바락의 망설임은 그의 믿음에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으나, 그로 인한 승리와 영광은 전적으로 바락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으나, 네가 떠나는 이 여정은 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임이라.”라고 말했다. 사사기 4:9

시스라와 그의 군대, 그리고 900대의 병거를 상대로 한 전투는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용감한 이스라엘 여인이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제 도망자가 된 시스라를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하여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 뒤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사사기 4:13-19 전투로 지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졌다. 야엘은 한 손에는 천막 말뚝을, 다른 손에는 망치를 단호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압제자가 잠든 천막으로 들어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아 넣었다. (사사기 4:21,22).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해졌고,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데보라와 바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데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락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57